

『傷寒論』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小柴胡湯 투여 후 호전된 부종 증례 1례

박서연* · 이성준#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36 다나한방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8-2 반도상가 201호 정인한의원#

A Case Report of Pitting Edema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Yeon Park*·Sung-Jun Lee#

Dana oriental medical hospital, 436, Geumhwa-ro, Nam-gu, Gwangju, Korea*
 Jung-In Oriental medical clinic, 638-2,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port the improvement of patient with pitting edema treated by herb medication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Methods : According to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Taeyang-byung, number 96 provision, and took Soshiho-tang herb medication 30days. The changing symptom of pitting edema is reported depended on the edema scale and the statement of patient during treatment.

Results : The pitting edema of patient disappeared by 96 provision of Soshiho-tang selected according to *Shanghanlun* provisions.

Conclusions : This case report suggests that two words on the 96 provision of *Shanghanlun*, ‘或 心下悸, 小便不利’(palpitations below the heart, inhibited urination) indicat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alpitation and decrease of genital secretions, which affected the edema in this case.

Key words: Soshiho-tang, Edema, *Shanghanlun*, Herb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Sung-Jun Lee. Jung-In Oriental medical clinic, 638-2, S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E-mail : baekpal@naver.com

· Received : 2017/12/01 · Revised : 2017/12/28 · Accepted : 2017/12/28

서론

부종은 조직 내에 림프액이나 조직의 삼출물 등의 액체가 고여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신체의 수분은 2/3가 세포 내에 있고, 1/3은 세포 외에 있다. 세포 외 수분의 1/4은 혈장이고 나머지는 간질액이다. 스탈링 법칙의 구성요소인 교질삼투압(osmotic pressure),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 혈관투과성(permeability)이 그 분포를 결정짓는다. 이러한 구성 요소의 변화에 의하여 혈관 내의 체액이 간질이나 흉강 및 복강과 같은 체강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종이 발생한다¹⁾.

부종은 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심장, 간, 신장 질환이 전신 부종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그 외 특발성 부종은 주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고 부종을 일으킬만한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없어야하고,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와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된 점이 특징적이다. 월경 주기와 무관한 기립성 부종과 월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스트로겐 부종이 대표적이다¹⁾.

한의학적으로 부종은 水腫으로 정의된다. 『內經』에서는 “水”라고 하였고, 『金匱要略』에서는 “水氣”라고 하여 病因脈症에 따라 風水, 皮水, 正水, 右水, 黃汗으로 나누었고, 五臟症候에 따라서 心水, 肝水, 脾水, 肺水, 腎水の 개념을 성립시켰다. 한의학에서 水腫의 원인은 外因으로서 六淫과 內因으로서 七情 그리고 飲食不節, 房勞 등이고, 脾肺腎三臟이 機能不調를 일으켜서 인체 내 수분이 氣化作用을 얻지 못하여 體內외의

수분의 운행에 違和가 생겨 水腫이 발생한다고 하였다²⁾.

한편, 『傷寒論』은 기존에 外感熱病疾患을 치료하는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³⁾ 등이 辨病診斷體系를 제안하였고 노⁴⁾ 등이 고문자적 해석 방식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진단체계와 해석방식으로 다양한 질환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에 대한 고문자적 해석 방식에 근거하여 辨病診斷體系를 통해 小柴胡湯을 투여하였고, 원인이 불분명한 양측 하지 함요성 부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새롭게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을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증례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여성 / 54세 / 155cm / 62kg / 기혼 / 주부

3. 주소증(c/c) : 양측 하지 함요성 부종

4. 발병일(o/s) : 15년 전 자궁 적출 이후

5. 현병력(history) :

- 1) 오전에 증상이 특히 심함
- 2) 몸이 힘들면 다리부터 부음
- 3)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부어 있을 때가

많음

4) 대학병원 신장, 심장 기능을 비롯한 각종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5) 이뇨제 등을 처방받아서 복용했지만 부종에 변화가 없어서 중단함

6) 신경증 증세라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가지 않다가 본원에 내원

6. 가족력 : 없음

7. 과거력 : 15년 전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 적출 수술

20년 전 협착증 진단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혈압약 1회 1일

9. 주요 임상 증상

1) 食慾: 양호, 허기를 참기 힘들

2) 消化: 더부룩하고 잘 체함, 소화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음

3) 口部: 1L/일

4) 汗出: 땀 많이 남

5) 大便: 1회/일

6) 小便: 6-7회/일, 야간 1-2회/일, 소변 본 후 통증 발생, 피로 시 소변볼 때 어려움

7) 寒熱: 더위, 추위를 모두 못 참는 편

8) 頭面: 어지럽고 눈의 피로 동반, 두통

9) 呼吸: 기침 자주 하는 편

10) 胸部: 답답함, 조금만 올라거나 피로할 때 심장 두근거림

11) 腹部: 가스가 잘 참

12) 睡眠: 깊지 못하고 금방 깸

13) 身體: 두항강통, 자궁적출 이후 허리 통증 심해짐

14) 性慾: 크지 않음

15) 스트레스 대응방식 :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편, 고민 시에 잠을 안 잠

16) 婦人: 출산 3회, 유산 2회, 질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1) 臨床所見

① 환자는 15년 전 자궁 적출 후 수술 결과로 인해 걱정이 매우 증가함. 환자에게 걱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불안함과 함께 심장이 더 두근거린다는 점을 확인함. 심장이 두근거릴수록 부종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

② 환자의 자궁 적출 상태와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 그리고 동반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

(2) 辨病診斷: 太陽之爲病

① 脉浮: 자궁 적출 이후 몸을 추슬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업을 벌인 것을 보조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던 상태.

② 頭項強痛, 而惡寒: 경추 통증 호소하여 근처 한의원에서 침구 치료를 받는 중이심. 감기 기운이 항상 있어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다고 느낌.

위, 脉浮, 頭項強痛, 而惡寒을 근거로 하여 太陽病으로 진단(Table 1)하였다.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Categor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Greater yang disease	太陽病	Excessive activity, Patient condition worsen with cold stimulation
palpitations below the heart	心下悸	Increased palpitation
inhibited urination	小便不利	Complete hysterectomy
fullness in the chest and hypochondrium	胸脇苦滿	Edema worsen under anxiety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3) 條文 診斷 : ⑮96.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脇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胸下痞鞭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微熱, 或欬 小柴胡湯主之.

① 往來寒熱 : 환자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데, 따뜻한 곳에 가면 곧 찬 것을 찾고, 시원한 곳에 가면 다시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형태로 체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을 보임.

② 胸脇苦滿 :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문제로 걱정이 많음. 자궁 적출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괜히 자궁 적출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③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댐. 그런 상황에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됨.

④ 或 心下悸, 小便不利 : 환자는 자궁을 적출한 이후 동시에 심장이 많이 뛰는 부분

이 더욱 심화되게 되었고, 부종이 발생된 시점이 일치함. 或 이하에 心下悸 小便不利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 현재 환자의 부종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게 되었음.

위 진단내용을 근거로 하여 태양병 96번 소시호탕 조문임을 진단(Table 2)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환자는 대학병원 검사 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검사소견을 평가 지표로 선정할 수 없었다.

함요성 부종의 평가에 관해 마련된 표준적인 평가지표가 마땅치 않아, 깊이 측정과 시간 측정을 통한 4점 척도를 활용하는 함요성 부종 정도 측정 방법(Grading of Edema)을 활용하여 경과를 평가하였다.

측정할 부위를 5초 동안 압력을 가한 후 손을 떼 후, 눌린 깊이(mm)와 눌린 부위가 원래 높이로 올라올 때 걸리는 시간(rebound time)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timeline에 따른 치료 과정 상 환자의 진술을 참고하였다.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小柴胡湯을 2017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37일의 진료 기간 중 30일 분을 투약 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탕전 방법은 아래 (Table 2) 과 같다.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Soshiho-tang¹²⁾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柴胡	Bupleuri Radix	24
半夏	Pinelliae Rhizoma	9
人蔘	Ginseng Radix	9
大棗	Zizyphi Fructus	12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9
甘草	Glycyrrhizae Radix	9
黃芩	Scutellariae Radix	9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30days.

2) 생활 지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심호흡을 많이 하여 안정을 찾도록 지시함.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2017년 8월 14일-9월 20일

2) 경과 (Figure 1, 2, 3 참고)

(1) 초진일 (2017년 8월 14일) : 자궁 적출 이후 심장이 많이 뛰는 상황에서 부종이 더 많이 발생함

부종이 전신에 나타나며 특히 다리부터 많이 부음. 다리가 많이 부어서 신발을 신기가 어려움.

· 부종의 깊이 : 4-5mm / Rebound time : 1-2분 이내

· 4점 척도 : 2+~3+. 부종의 깊이는 중증도의 함요 부종에 해당하나, 회복 시간은 중증 함요 부종에 해당.

(2) 14일 후 경과 확인 (2017년 8월 28일. 小柴胡湯 복용 7일)

한약 복용 이후 3-4일이 지나면서부터 심장이 덜 두근대는 것이 느껴지며 안정됨.

몇 시간씩 활동해도 하체의 피로가 적음.

(3) 38일 후 재진 (2017년 9월 20일. 小柴胡湯 복용 30일)

하체부종이 거의 사라져, 복약 2주 후에는 신발 신는 것에 불편감이 전혀 없었음.

· 부종의 깊이 : (-) / Rebound time : (-)

(4) 복약 종료 후 재진 (2017년 11월 27일) 부종 사라진 상태이며, 이전에 신던 신발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짐.

· 부종의 깊이 : (-) / Rebound time : (-)

더불어 자궁 적출 이후에 발생했던 생식기 주변의 가려움증 호전됨

Figure 1. Depth of Edema of lower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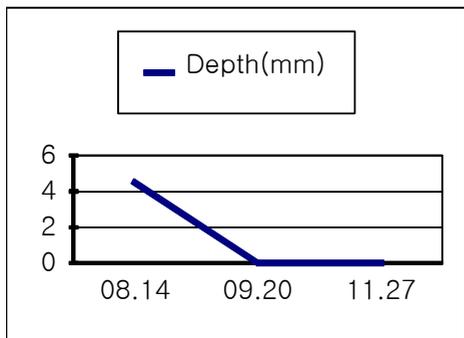


Figure 2. Rebound time of Edema of lower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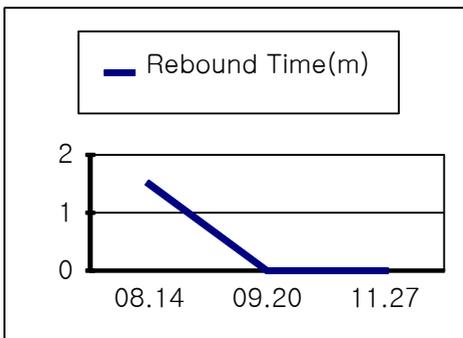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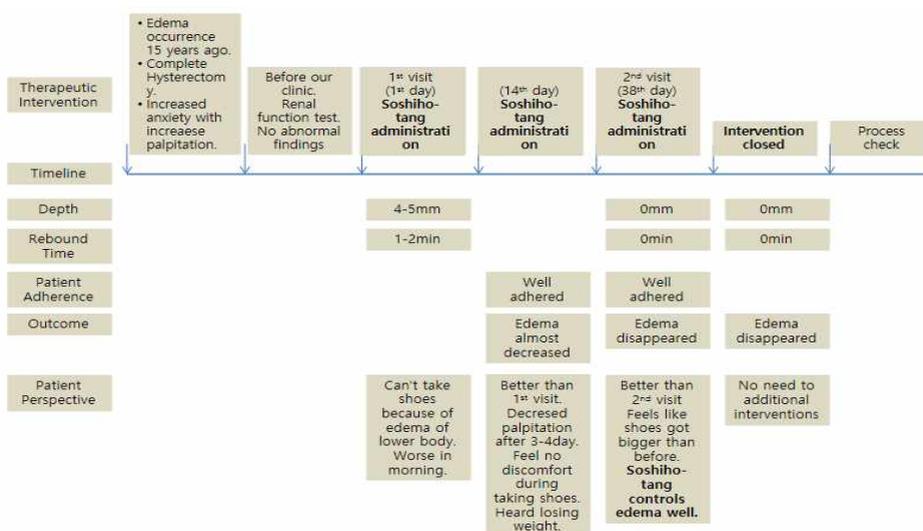


Figure 3.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 This figure's category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Depth of edema on legs, Rebounding time of edema),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부종부위를 탄력스타킹이나 붕대로 조여 부종을 관리할 수 있다⁶⁾.

한의학적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 外因과 內因을 구분하여 치료하나 대체로 그 實證에서는 주로 疏風解表, 宣肺行水하고 虛證은 補中行濕 利小便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⁷⁾. 원인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활용되며, 後世方에서는 補中治濕湯, 澤瀉散, 加減胃苓湯, 五皮散 등, 古方에서는 五苓散, 越婢湯, 防己茯苓湯 등이 浮腫에 대한 治方으로 활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종은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환자의 일차 질환에 대한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증례의 환자와 같이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부종 자체를 주소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증례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의학 임상 연구로는 림프 부종이나 뇌부종과 같은 특수한 부종에 대한 연구 결과나 임신부종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한 부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傷寒論』에 기록된 처방으로 부종을 주소로 치료한 증례보고는 없었으며 본 논문의 小柴胡湯 증례가 처음이다.

저자는 『傷寒論』을 기존의 外感熱病, 六經轉變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론에서 언급한 辨病診斷體系와 고문자적 해석 방식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였다. 기존의 진단 방법과의 차이점은 환자의 병력청취 과정에서 원인이 되는 현상을 제강으로 선정한 후, 주소증과 연관된 증상을 기준으로 조문을 선택하며, 현대의 한자해석 방식이 아닌 『傷寒論』이 형성된 2000년 전의 고문자적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小柴胡湯을 통한 한의학적 임상

증례로는 임⁸⁾등의 소시호탕을 투여한 오심, 구역, 구토 및 식후포만감 1례, 양⁹⁾등의 뇌교경색을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의 소시호탕 치험례, 노¹⁰⁾등의 소시호탕으로 호전을 보인 소화기계 문제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치험 2례, 류¹¹⁾등의 『傷寒論』 변병진단체계에 근거하여 소시호탕 투여 후 호전된 만성기침 1례 등 다양한 범위의 주소에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부종을 주소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小柴胡湯 증례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평소에도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 움직임이 많았으며 15년 전 자궁절제술 이후에 그러한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방식(脈浮)으로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한의원을 다니며 경추통에 대해 침 치료를 받는다는 점(頭項強痛), 감기에 잘 걸리며 항상 춥다고 느끼는 점(惡寒)을 확인하여 太陽病으로 진단하였다.

조문 진단에서 환자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 나타나게 된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병력 청취를 통해 고문자적 해석 방식에 따른 96條의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는 자궁적출을 하면서 걱정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이 병발했다. 환자가 자궁을 적출한 상태는 傷寒論 고문자적 해석에 따르면 ‘小便不利’로 표현할 수 있었다. 기존의 해석방식에 따르면 小便不利는 비뇨기계인 小便 자체의 문제를 의미한다.

利의 고문자 형태를 살펴보면(Figure 4) 곡식을 의미하는 글자(禾)와 칼을 의미하는

Figure 4. From grain 禾 and knife 刀.
Meaning profit, as from the fields.



글자(刀)로 구성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곧, 낮으로 벼를 벨 때 낱알이 손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이를 통해 利가 대, 소변 외에 단독으로 인체에 적용될 때는 몸에서 낱알이 떨어지듯 찢끔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인체 하부의 배변, 배뇨, 생식기 분비물과 그 분비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성에 있어서 생리, 남성에 있어서 정액의 분비 현상을 모두 고문자적 방식에서 利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는 자궁을 적출하였으므로 더 이상 利하지 못하는 不利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이를 小便不利로 해석하였다. 이에 동반되어 나타난 心悸亢進 현상을 心下悸로 판단할 수 있었다.

고문자적 방식의 해석은 기존의 傷寒論에 대한 해석과 다르다. 서적이 저술된 시기에 사용되던 글자의 의미를 알아 傷寒論 본래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저술된 시기에 통용되던 의미와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병적 현상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傷寒論 小柴胡湯 처방만으로 환자의 오래된 浮腫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小柴胡湯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였

다. 또한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활용하여 太陽病으로 진단한 환자의 병발 과정을 고문자적 해석방식에 따른 ‘或小便不利, 心下悸’의 고찰을 통해 진단하여 96條 小柴胡湯을 부중에 활용함으로써 小柴胡湯 조문의 해석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條文中서 或으로 이어지는 부분 중 고문자적 해석방식에 따른 ‘或小便不利, 心下悸’의 고찰을 통해 두 요인이 인과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주소증인 부중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요인이 투약을 통해 주소증과 함께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 측정 시 부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경과 평가 도구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객관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증례 보고에 불과하므로 향후 고문자적 고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중에 대한 재현성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조문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15년 전 자궁근종으로 자궁 절제 수술을 받은 후에, 전신 부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된 환자에게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입각하여 太陽病으로 진단하고 고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96번 條文의 小柴胡湯을 30일간 투여하여 호전된 증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환자를 太陽病으로 진단하여 小柴胡湯을 30일 간(90pack) 복용하도록 하여 초진 당시 부종으로 인해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가던 환자에게 ‘복약 14일 후 신발을 신는데 불편함이 사라지고, 복약 30일 후에는 부종이 사라지고 신발이 오히려 커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진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96條의 ‘或心下悸, 小便不利’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小便不利를 기존의 ‘소변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기 분비물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로 해석하여 小柴胡湯을 투여하였으며, 본 증례 환자의 호전경과를 고찰할 때 이에 대한 임상적 진단 및 해석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96條의 ‘或心下悸, 小便不利’에 대하여 본 증례 환자의 발병과정과 약물 투여에 따른 호전경과를 고찰할 때, 조문 상 或 아래에 心下悸와 小便不利가 같이 작성된 것에 대한 임상적 진단 및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ference

1. DW Jeong, SY Lee. Edema. Korean Journal of Fam Med. 2010;31:829-836.
2. MS Jo, BG Lee. A Literature Study on Dropsy.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1992;17(3):77-83.

3. JE Lim, SJ Le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5(1):1-17.
4. YB Rho, JH Lee, HI Ha.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i and Shanghanlun Provisions Based on Paleography.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7(1):1-14.
5. SG Park, SG Kang.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Edema.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1993;12(7):101-107.
6. DH Yang. Diagnosis and treatment on patients with edema. Korean Journal of Medicine. 1999;57(4):823-828.
7. TH Baek. A study of dietetic therapy on the edema. Korean Journal of Herbology. 2010;25(4):151-160.
8. JM Lim, SM Lee, WI Kim. A Case Report on Nausea, Retching, Vomiting and Postprandial Fullness Treated with Soshiho-tang. Herbal Formula Science(HFS). 2013;21(2):158-164.
9. JC Yang, SG Kim, KY Lee, JY Kim, BM Koo. A Clinical Study about the Effects of Soshiho-tang on a Case of Parkinson's Disease with Pontine Infarction. J Korean Oriental Med. 2007;28(2):34-43.
10. HM Rho, SK Park, IH Park, EH Jo, MC Park. Two cases of Atopic Dermatitis with Gastro-intestinal Disorders treated with Soshiho-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08-216.
11. HC Ryu, SI Lee. A Case Report of Chronic cough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8(1):99-108.
12. Lee SI, Cho HR. The comparison of the Shanghanlu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206.